

흥릉숲과 친구가 되어 봅니다

지난 4월 4일 서울 월곡중학교 푸른숲선도원들이 흥릉숲과 친구가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날 보슬보슬 봄비가 내린 탓으로 흥릉숲은 축축하게 빗물을 머금고 푸른숲선도원을 맞이하였습니다. 갖가지 꽃과 나무들이 인사를 하고, 살랑살랑 봄바람을 맞으면서 즐거운 흥릉숲교실이 진행되었습니다.



{ 시인이시며 국립수목원 해설가로 활동하고 계신 장찬영선생님의 열성적인 설명을 듣고 있는 2학년 7반 학생들 }



이날 푸른숲선도원들은 흥릉숲을 산책하면서 피톤치드의 싱그러움도 느끼고, 도장나무라고도 불리는 회양목 관찰하기, 애국가에도 등장하는 철갑을 두른 듯한 수피를 가지고 있는 소나무, 자작나무의 생태를 묘사한 장찬영 선생님의 시 감상하기 시간을 가졌습니다.



숲해설을 마치고는 산림과학관 안에 들어가 우리나라 산림현황과 역사에 대해 관람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오감을 통해 자연을 만끽한 푸른숲선도원들의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보람된 하루였습니다.